

지역 매 아리



제8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원구성

의장 이한수 · 부의장 장은아 의원 선출

제8대 부안군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함께 새 출발을 알리는 개원식을 갖고 군민행복을 위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개원식에 앞서 진행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에 이한수 의원을, 부의장에 장은아 의원을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했다.

또 의회운영위원장에 이강세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연식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오장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다.

부안 군의회 이한수 의장은 개원사에서 "새로운 출발, 더 큰 행복, 군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다짐하는 제8대 부안 군의회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동료의원들과 더불어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유진섭 정읍시장, 공식 업무 돌입 취임식 취소 긴급 재난상황 점검 등 민선7기 시정 본격화

유진섭 정읍시장이 민선 7기 첫날부터 숨 가쁜 일정을 보냈다.

(관련기사 16면)

유 시장은 2일 정미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당초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오전 9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정읍에는 지난 1일부터

2일 오전 7시까지 모두 87mm의 비가 내렸으나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 시장은 회의에서 기상특보 발표와 강우량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아직까지는 정읍에서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많은 피해

가 발생하고 있고 기상 상황이 유동적인만큼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산사태와 침수, 축대 붕괴, 하천 범람 등 비 피해가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지구인 금봉천을 방문해 “전북지역의 경우 예상보다는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지만 3일까지 매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는 만큼 현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7기 시정 목표와 5대 방침을 설명하며 시정 방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읍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정읍시정을 맡겨 주신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을 섬기기보다는 시민과 가까운 이웃, 형제와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민선 7기 시정 목표로 밝혔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 5대 방침으로 ▲풍격있는 안전행복도시 ▲살맛나는 첨단경제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 ▲찾고싶은 문화관광도시 ▲스마트한 농·생명도시를 제시하고 분야별 주요 공약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 시장은 2일 정미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당초 예정된 취임식을 취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난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유기상호 고창군정 새출발

민선 7기 고창군수 취임식 성황리 마쳐

제7호 태풍 '쁘라삐룬' 피해 현황 파악 병행

민선 7기 고창군정을 이끌어갈 유기상 군수가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 1일 오전 군 재난종합상황실에 들러 제7호 태풍 '쁘라삐룬'에 대한 피해 현황 파악과 대책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오후 7시 취임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군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오후 시간에 진행된 취임식은 고창문화회 전당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재외군민,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민선 3,4,5기 고창군정을 이끈 이강수 전 군수와 민선 6기 박우정 전 군수가 참석하여 민선 7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행사는 유기상 군수의 걸어온 길 동영상과 취임선서, 취임사와 대통령 축하메시지 낭독,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열의를 담은 축하영상과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취임식은 군민이 주인인 고창군을 위한 위대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의 장으로 원하는 군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선 7기 고창군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함께 꿈꾸고 이뤄가는 고창의 꿈을 그리는 퍼포먼스 등 소통과 참여의 장으로 꾸며졌다.

유기상 군수는 “대한민국 고창시대라는 새 시대, 새 문명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대한 고창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운 고창을 갈망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지구상에서 가장 찬란했던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이름을 빛내겠다"고 말하고 "변화와 희망, 통합의 새로운 시대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고창군의 발전을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교과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군민과 함께 고민하며 고창의 백년 먹거리로 농생명식품산업과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의 두 개의 축단지를 걸고 '한국인의 먹거리'라고, '고창'의 브랜드 가치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창의 역사문화를 자랑하는 자긍심 가진 고창인이 되어 고창의 경제 살리기, 나눔과 봉사로 자존감이 높은 고창을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감염병 예방

'올바른 손 씻기' 캠페인

정읍시보건소는 최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캠페인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날 오전에는 보건소를 찾는 시민을 대상으로 형광로션과 류박스를 이용한 손 씻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어 오후에는 버스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올바른 손 씻기는 수인성 질환과 식품 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 각종 감염성 질환 예방의 기본이다"며 6단계 올바른 손 씻기 요령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리플릿과 홍보용 물티슈 등 홍보물을 나눠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위장관 감염증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태풍 피해 최소화 주력

취임식은 약식으로 대체

자연재난대책회의 · 현장방문

제45대 권익현 부안군수가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복상과 관련해 군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 확보에 대비하고자 취임식을 약식으로 대체하고 태풍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 권익현 군수는 부안스포츠파크내 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5대 부안군수 취임식을 취소하고 부안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외부인사 초청 없이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 등 간단한 절차만 갖고 자연재난 대책회의 및 현장방문에 나섰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호국영렬탑을 찾아 헌화 분향했으며 사무인수서에 서명한 후 자연재난대책회의 및 현장방문과 사회복지시설 배식봉사 등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권익현 군수는 별도로 배포한 취임사에서 “부안군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이번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는 새로운 부안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할 동반자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경쟁의 순간을 뒤로 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오늘부터

새로운 부안을 만드는 군수가 되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군수부터 혁신하고 새로워지겠다. 투명한 행정으로 청렴 부안을 만들고 일 중심의 행정조직을 만들어 군민들의 행정만족을 실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밖에도 권익현 군수는 “부안을 위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전, 새로운 미래의 분이 이제 새롭게 활짝 열렸다”며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풍요로운 부안,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실현, 교육청과 협치를 통한 인재 양성, 전국 최대 휴양도시 관광 부안 추진 등으로 부안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복상 중인 태풍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취임식보다는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군민과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 태풍대비에 힘써 달라”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중소벤처기업부 희망사업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정읍 대표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2년 간 국비 등 10억원(시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는 특성과 기반이 확립된 전통시장에 부문별 특성화 사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특산물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창호 샘고을시장 상인회장은 “전문 컨설팅과 시장상인기화단의 의견을 수렴해 '웰빙먹거리 특화거리 조성'과 100년 먹거리 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선정과 관련, 유진섭 시장은 당선자 시절 이수혁 더불어 민중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공조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시와

시장 상인회는 '샘고을시장 프로젝트 사업단'을 구성해 '샘고을 웰빙먹거리 특화거리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통해 내장산 방문객들의 샘고을 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요리축제 등을 활성화시켜 관광특화형 시장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샘고을시장만의 웰빙 특화상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그리고 살거리를 갖춘 명품 전통시장으로서의 경쟁력 높이기에도 나선다.

특히 정읍의 문화와 관광지를 활용 또는 연계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문화 점목 콘텐츠와 특화상품 개발과 지역사회협업, 청년 상인 육성 등을 추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럽게 빚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 SET 3호 | 750ml 1ea/12% | GIF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 SET 5호 | 375ml 5ea/13% | GIF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 SET 7호 | 375ml 2ea/13%

부안강산뽕주
Premium Odi Wine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